

韓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이는 朱熹의 문학관 및 그 의의*

- 『朱子語類』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安贊淳**

目 录

1. 서언
2. 한유 대한 평가
 - 1) 이학가적 입장에서 한유에 대한 평가
 - 2) 문학적 입장에서의 한유에 대한 평가
 - (1) 총론성의 평가
 - (2) 한유에 대한 기타 문학적인 평가
3.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가 갖는 의의 및 결어

1. 서언¹⁾

당송팔대가라 불리는 고문가들에 의해 주도된 고문은 당송 문단에서 매우

* 永進專門大學 觀光中國語通譯專攻 副教授

1) 먼저 이 논문을 쓰면서 莫礪鋒의 『朱熹文學研究』(남경대학출판사, 2000년)를 참고하면서 인용문이 겹치는 경우 우리말 해석은 이흥진·안찬순 역, 『주희 문학의 연구』(역락출판사, 2015년)를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각주에 밝히지 않음을 밝힌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본래 「한유·소식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본 주희의 문학관과 그 의의」란 제목으로 작성하는 과정에 분량이 방대하여 부득이 둘로 나누어 먼저 「소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이는 주희의 문학관 및 그 의의」란 제목으로 두고 후(중국어문학논집, 2016.10.31. 게재 확정) 다시 한유만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라 논의의 대상은 다르지만 도입부와 결론 등 일부 내용의 중복이 불가피했음을 밝힌다.

큰 중요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산문분야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고문은 중당시기 한유·유종원에 이르러 성했지만 만당을 거치며 다시 쇠퇴한 양상을 보이다가 송초 구양수·三蘇 등이 문단을 이끌면서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며 그들의 영향력은 남송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유·유종원을 시작으로 북송의 구양수·三蘇를 거치는 기간은 바로 송대 이학이 흥기하여 발전한 시기와 맞물린다. 고문가들은 周敦頤에서 二程 그리고 이들의 이학적 견해와 문학관을 흡수하고 집대성한 주희 등과 모두 같이 孔孟을 배우는 儒學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고문가들은 전통유학과는 공부 방법부터 궁극적 목적까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보니, 이학가들과의 대립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고문가들과 이학가 간의 다툼은 비록 대체로 유학 내부의 다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각기 문학관의 형성 연원이나 과정에 차이가 있고, ‘文’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대표하는 진영이 다름에 따른 입장차이가 커서 문학관에 있어서의 차이는 확연했다. 그들은 문학 영역뿐 아니라 학술적 영역에서도 자주 대립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歐陽脩·蘇軾을 대표로 하는 문학가들은 儒道의 해석에 있어서도 二程을 대표로 하는 이학가들과 맞서기도 하였으나, 남송에 이르러 양상이 크게 달라져 주희가 주도한 이학의 위세는 문학을 완전히 능가하였다.

주희는 이학 외에 문학에 대한 조예가 출중하였으며 창작활동 또한 왕성하여 『朱文公文集』권1에서 권10까지 모두 詩賦로 1,148수나 되며, 『別集』과 『朱熹佚文輯考』에 전하는 佚詩를 더하면 1,300여 수에 이르며, 시 외에 詞 16수까지 더하면 그 문학창작활동의 왕성함은 전문 문인이라고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이학사상으로 무장하고 문학영역에서도 고도의 조예와 흥취를 지닌 주희와 儒家의 道統과 文統의 전승자를 자임한 걸출한 문인 한유를 위시한 구양수·三蘇 등 고문가에 대한 주희의 비판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한유는 唐代 문인들 가운데에서는 분명 문학과 유학자를 겸하였다 볼 수 있으며, 한유는 儒道의 부흥을 주창하고 은근히 道統을 자임하였고, 송대의

구양수나 소식 등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周敦頤·二程으로부터 주희에 이르는 이학가들은 그를 유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송대에 들어서는 문학이론도 점차 고문가의 문론과 이학가의 문론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러한 분화에는 이학가의 의도가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송대 구양수에서부터 소식까지 오면서 그들이 말하는 ‘道’의 개념에서 유가적인 색채가 점점 열어지고, ‘文’과 ‘道’의 관계도 당초 ‘重道輕文’에서 ‘文道並重’으로 그리고 끝내 심지어는 ‘重文輕道’로의 경향을 보인 탓도 컸다.

주희는 이학과 문학가를 겸한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자의적이든 아니든 제자들과 타인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한유를 비롯한 문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당송문인 가운데 주희가 비판한 인물은 많이 있지만 唐代의 한유는 그의 고문가로서의 문학적 지위나 儒道내부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인하여 주희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대상이었다.

주희의 한유에 대한 대량의 평론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한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희 자신의 문학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본고는 주로 『朱子語類』²⁾에 보이는 한유에 대한 주희의 여러 견해를 통하여 투영된 주희의 문학관을 살펴보고, 그의 그러한 문학관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한유에 대한 평가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서 한유의 인격·학술사상·문학 등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만, 본고는 한유의 문학에 대한 주희의

2) 주로 中華書局에서 1994에 출판한 『朱子語類』를 참고하였지만 타 판본도 자주 검색에 이용하였기에 각주에서는 편의상 특정판본의 쪽수를 적지 않고 해당권수와 ‘제○조목’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평론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문학과 관련이 적은 그 밖의 평론들은 가급적 논외로 하고자 한다.

주희는 당시 이학대종사와 문학가, 그리고 심지어 문학평론가의 신분을 겸한 다중신분을 가짐으로 인해 그의 문학에 대한 견해도 그의 입장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컸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마치 다른 사람 같기도 할 정도였다. 한유는 주희가 평론한 당송 문인 가운데 아마 소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하고 평론한 문인일 것이다. 그의 한유에 대한 언급은 주로 『朱子語類』에 보이는데, 필자가 대략 검색해본 결과 『朱子語類』에서만 ‘(韓)退之’로 80여 차례나 언급하였고 그 밖에 ‘韓子’·‘韓文公’·‘韓公’ 등으로 각각 20여 차례씩, ‘韓愈’ 10여 차례, 그리고 기타 ‘韓文’·‘昌黎’·‘韓柳’ 등으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로부터 주희가 평소 한유에 대해 얼마나 의식하고 있으며 또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지를 엿볼 수 있다. 주희는 周敦頤·二程 등의 이학사상을 계승한 동시에 그들의 이학가적 문학관점도 계승하였다. 그래서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 가운데 자연히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지만 또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주희가 한유에 대해서 그와 같이 다른 평가가 있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가 立論하는 입장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는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를 크게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평가와 문학적 입장에서의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각각의 평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학가적 입장에서 한유에 대한 평가

주희의 한유에 대한 인격·학술사상을 포함한 문학관이나 작품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대부분 주희의 이학가적 입장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로 주희 문학이론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文道’론과 관련이 많다.

당송 고문가들의 ‘文以貫道’나 ‘文以明道’와 송대 이학가들이 말하는 ‘文以

載道'는 전후 배경을 차치하고 글자자체가 갖는 의미로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貫'이나 '明'·'載' 라는 글자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 꿰고'·' 밝히고'·' 실으려는' '道'의 함의에서 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유가 「原道」에서 孔·孟으로 전해져온 유가의 道統을 회복할 것을 주창하면서 은연중 도통의 계승자를 자임하였고 고문가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이었지만 이학가 주희가 보기에는 한유나 소식 등은 그저 “한유와 구양수·소식 등의 의론은 단지 글을 쓰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을 뿐으로 간혹 잠시 곁들여서 이치를 좀 말 하기는 하지만 그 본의는 결국 자연히 드러난다.”³⁾ 이라고 여겨,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통에서도 한유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우선, 아래에서 한유에 대한 이학가적 입장에서 평가를 살펴보자.

주희의 이학가로서의 입장에서 한유·구양수 등 유가적 색채가 강한 당송 고문운동사에서의 대가급 문인들에 대한 종합적 태도와 평가는 아래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주희의 평가를 보자.

東京으로 천도한 이래로 隋唐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文은 점점 쇠락하여 道에서 점차 멀어졌으니, 알맹이가 없는 글은 더욱 말할 것이 없다. 한유가 나오고 나서야 당시의 글이 비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한 시기에 분연히 호령하며 진부한 언어를 없애고 詩·書등 六藝의 작품을 뒤쫓으려 하였지만 그가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세월을 낭비한 것은 또 그 전대의 여러 사람들이 한 것 보다 더욱 더 심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유는 뿌리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대략 알았기에,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합치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原道」 등 여러 편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 글에서 “뿌리가 무성한 것은 그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되고, 살이 찌고 기름지면 그 빛이 밖으로 발하게 된다. 仁義를 지닌 사람은 말이 상냥하다.”라고 말하니 그의 제자가 그것에 화답하여 또한 “도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글을 잘 쓴 사람은 없다.”고 하였으니 또한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 『朱子語類』 권137, 제80조목, “韓退之及歐蘇諸公議論, 不過是主於文詞, 少間却是邊頭帶說得些道理, 其本意終自可見.”

지금 그의 글을 읽어보면 아침하거나 장난스럽고, 거리낌이 없다보니 알맹이가 없는 것도 자연히 적지 않다. 그가 궁구한 道도 그 대강을 말로만 할 수 있었지 깊이 연구하거나 실천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제자들의 논의 또한 단지 남의 말을 베껴 쓰거나 표절하는 것을 문장을 쓰는데 있어서의 폐단으로 여겨서 쇠미한 문풍을 진작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유의 공로이다. 그런데 그들 사제기간에 전수할 때에 ‘도(道)’와 ‘문(文)’을 둘로 나누게 됨을 면치 못했고, 그 輕重과 緩急, 本末·主客이 도치됨을 면하지 못했다. 그 때부터 또 수백 년간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歐陽修가 나타났다. …… 내가 『唐書』를 읽다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말을 적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4)

주희는 여기에서 한유에 대해 褒貶이 함께 하고 있는데, 주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유는 공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희는 우선 한유가 당시의 쇠미한 문풍을 바로잡으려한 의도나 성취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보이지만 한유의 성취나 영향력이 컸던 만큼 그가 가져온 폐단 또한 더욱 컸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희는 문·도 관계에 입각하여 한유는 비록 道를 표방하며 쇠미한 문풍을 바로 잡으려 했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성현의 도와 합치하는 면도 있었지만 실제 창작을 보면 유희적인 글이나 내용이 없는 글이 많아 그 성과가 회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한유가 쇠미한 문풍을 진작시키고 후세인들이 따를 수 있는 典範을

4) 『朱文公文集』 권70, 3쪽~5쪽. “東京以降, 訖于隋唐, 數百年間, 愈下愈衰, 則其去道益遠, 而無實之文, 亦無足論. 韓愈氏出, 始覺其陋, 慨然號于一世, 欲去陳言, 以追詩書六藝之作, 而其弊精神, 糜歲月, 又有甚于前世諸人之所爲者, 然猶幸其略知不根無實之不足恃, 因是頗析其源而適有會焉. 于是「原道」諸篇始作, 而其言曰: “根之茂者其實遂, 膏之沃者其光曄. 仁義之人, 其言藹如也.” 其徒和之, 亦曰: “未有不深于道而能文者.” 則亦庶幾其賢矣. 然今讀其書, 則其出于詔諛戲豫, 放浪而無實者, 自不爲少. 若夫所原之道, 則亦徒能言其大體, 而未見其有探討服行之效. 至于其徒之論, 亦但以剽掠僭竊爲文之病, 大振頹風, 教人自爲, 爲韓之功. 則其師生之間, 傳授之際, 蓋未免裂道與文以爲兩物, 而于其輕重緩急·本末賓主之分, 又未免于倒懸而逆置之也. 自是以來, 又復衰歇數百年, 而後歐陽子出. …… 吾讀『唐書』而有感, 因書其說以訂之.”

보인 것은 공로로 인정되나 ‘道’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던 탓으로 도와 문을 둘로 나누게 됨을 면치 못하였고(未免裂道與文以爲兩物) 심지어 본말을 전도시켜 문을 중시하고 도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였음을 질책하고 있다.

셋째, 비록 한유가 유도의 계승자로 자임했고 추종자들로부터 추송을 받았지만 주희가 말하는 ‘道’와는 여전히 간극이 커서 그들의 ‘文’이 文王·孔子의 ‘文’과는 과연 같은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며 완곡하게 부정하고 있다.

넷째, 주희의 “한유가 나오고 나서야 당시의 글이 비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한 시기에 분연히 호령하며 진부한 언어를 없애고 詩·書등 六藝의 작품을 뒤쫓으려 하였지만 그가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세월을 낭비한 것은 또 그 전대의 여러 사람들이 한 것 보다 더욱 더 심했다.”라는 말 속에 한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학자 주희가 보았을 때 그의 성취나 폐단이 한 개인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시 문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에 더욱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다시 韓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불만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평가를 보자.

한유는 큰 곳은 보았지만 작용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를 들어 「원도」편을 보면 맹자 이후에 것처럼 견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저 본원이 그러하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아래 공부하는 텅 비어 더 이상 그것을 받쳐줄 것이 없어서, 用處 부분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독서를 하는 것도 단지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단지 글을 쓰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륜이나 실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효용이 없었다. 매일 술 마시고 시를 쓰는 몇몇 수재나 스님을 불러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글쓰기 연습을 할 줄만 알아서 이쪽 일을 할 겨를이 없었다. 거기에다가 그는 ‘이것이 바로 성현의 사업이다.’라고 하고는 스스로 그것이 잘못임을 몰랐다. 예를 들면 문장을 논하여 “굴원·순자·맹자·사마천·사마상여·양웅의 무리”라고 하여 맹자와 이들 몇몇을 함께 논하고 있으니 그가 식견이 없고 말이 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⁵⁾

한유, 구양수는 이른바 올바른 학문을 견지하며 불교나 도교 사상이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더 잘 처리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한다 해도 어색하고 잘 알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치를 궁구하지 않고 그저 글쓰기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⁶⁾

다시 이상 한유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유 역시 유가의 도를 대체적으로 알기는 하여 특히 그의 「原道」를 보면 그가 유가의 본원을 파악하기는 한 것 같으나 성현의 공부보다 글공부에 몰두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글쓰기에만 힘쓰면서 마치 그것이 성현의 일인 것처럼 오인하여 문인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니 정작 성현의 일에는 무지하여 문장을 논하며 맹자를 굴원, 사마상여 같은 무리와 함께 논하는 우를 범할 정도로 식견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다른 평어를 보자.

한유는 비록 도의 큰 쓰임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 힘을 기울인 것은 없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관직을 얻어 볼까 했는데 시종 단지 그 마음이었다. 그는 그저 문장을 六經처럼 써보려고 했고 그러면 道를 전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가 매일 하는 공부란 것은 단지 시를 짓고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뿐이었다. 그의 시를 보면 바로 모두 그

5) 『朱子語類』 권137, 제17조목, “韓退之則於大體處見得, 而於作用施爲處却不曉. 如「原道」一篇, 自孟子後無人似它見得. …… 只是空見得個本原如此, 下面工夫都空疏, 更無物事撐住襯簾, 所以於用處不甚可人意. 緣他費工夫去作文, 所以讀書者, 只爲作文用. 自朝至暮, 自少至老, 只是火急去弄文章; 而於經綸實務不會究心, 所以作用不得. 每日只是招引得幾個詩酒秀才和尚度日. 有些工夫, 只了得去磨煉文章, 所以無工夫來做這邊事. 兼他說, 我這個便是聖賢事業了. 自不知其非. 如論文章云: “自屈原·荀卿·孟軻·司馬遷·相如·揚雄之徒”, 却把孟軻與數子同論, 可見無見識, 都不成議論.”

6) 『朱子語類』 권137, 제79조목, “韓退之, 歐陽永叔所謂扶持正學, 不雜釋老者也. 然到得緊要處, 更處置不行, 更說不去. 便說得來也拙, 不分曉. 緣他不會去窮理, 只是學作文, 所以如此.”

의 「原道」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관리가 되고 政事를 볼 때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일컬을 만한 것도 없다. 사실 그저 관직만 하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이다.⁷⁾

이 또한 바로 위에서의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한유를 비판하고 있다. 즉 한유가 ‘道’의 요체를 대략 알기는 했지만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고 단지 관직을 얻을 목적으로 글공부에 힘쓰면서, 육경의 언어를 모방하여 쓰는 것으로 마치 ‘道統’을 잇는 것으로 착각하고, 평소 글쓰기를 바둑·음주와 함께 유희로 삼으며 별다른 정치적 치적도 보여주지 못해서, 「原道」에서 보인 유가적 정신을 뒷받침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四書章句集註』에서 주희가 생각하는 ‘道統’관에서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맹자가 죽자 그 전통이 사라졌는데, 그 책은 비록 남았지만 이는 사람이 적었다. 그 이래로 세속의 선비들의 글을 배끼고 외우는 습속은 功은 소학보다 배로 더 들었지만 쓸모가 없었다. ……그러나 천운은 순환하여 끝없이 반복되어 송대에 이르러 덕이 융성해져서 다스림과 가르침이 훌륭하게 밝아졌다. 이에 하남의 두 程 선생이 나와서 맹씨가 전하던 것을 이을 수 있게 되었다⁸⁾

즉, 위와 같이 맹자이후 유가적 도통을 잇는 인물로 二程을 바로 연결하고 한유의 儒道史에서의 지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결국 주희가 말한 바대로 “한문공의 第一義는 글공부이고 第二義가 도리를 궁구하는 것이어서 식견이 정확하지 않

7) 『朱子語類』 권137, 제21조목, “韓退之雖是見得箇道之大用是如此, 然卻無實用功處. 它當初本只是要討官職做, 始終只是這心. 他只是要做得言語似六經, 便以爲傳道. 至其每日功夫, 只是做詩, 博奕, 酣飲取樂而已. 觀其詩便可見, 都襯貼那「原道」不起. 至其做官臨政, 也不是要爲國做事, 也無甚可稱, 其實只是要討官職而已.”

8) 『四書章句集註』 중화서국 1983년판, 제2쪽, “及孟子沒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 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 ……天運循環, 無往不復, 宋德隆盛, 治教休明, 於是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다.”⁹⁾라는 말에 잘 집약되어 있다. 즉, 이학가 주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儒道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주희가 보기에 한유는 글공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유가의 ‘道’ 또한 글공부의 수단이나 제재로 전락한 면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식견이 부족함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文道와 관련 된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는 대략 위에서 언급한 정도이다.

이상 주희가 이학가적 입장에서 한유에 가한 평가를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유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한유가 문인들에게서 쌓아온 儒家 道統에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로 갖는 의미가 크다.

둘째, 주희는 한유가 文以貫道·文以明道를 주창하며 문장을 씬에 있어서 道를 표방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긴 하였지만, 주희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文道’관계를 문은 문대로 도는 도대로(文自文, 道自道)로 보아 결국 “도와 문을 갈라서 둘로 여겼다.”(裂道與文以爲兩物)라고 여겨서 이학가의 문도는 일체로 문은 도에서 나온다는 견해와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이학가적 입장에서 한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부정적인 평가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러한 평가는 모두 문학 외적인 평가로 직접적으로 문학과 관련이 적다.

이상에서 주희가 이학가적 입장에서 한유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이학가적 입장에서 볼 때 문인들이 “대개 모두 문인으로 자처하며 평상시 독서를 할 때 고금의 治亂이나 興衰만 따지고 궁구하여 글을 쓰려고 하였지만 모두 자신의 심신 수양 공부는 하지 않고 평상시 시를 쓰고 술을 마시며 놀이로 소일하였다.”¹⁰⁾라고 하는 그런 태도나 글을 씬에 있어서 文道 관계를 이해할 때 그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하나이어야 하는 文

9) 『朱子語類』 권137, 제71조목, “韓文公第一義是去學文字, 第二義方去窮究道理, 所以看得不親切.”

10) 『朱子語類』 권130, 제79조목, “大概皆以文人自立. 平時讀書, 只把做考究古今治亂興衰底事, 要做文章, 都不會向身上做工夫, 平日只是以吟詩飲酒戲謔度日”

과 道를 둘로 갈라놓았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사실 비단 주희뿐 아니라 周敦頤로부터 二程을 거치면서 이학가들의 고문가들에 대한 일관적인 비판과 같은 논조로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본고는 이러한 비판들을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평가’라고 한다.

2) 문학적 입장에서의 한유에 대한 평가

앞에서 언급하였듯 주희가 제자들이나 당시 후학들에게 성리학적 강학 외에 문학관련 담론도 적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자연스럽게 한유·구양수·소식 등 당시 혹은 전대의 문학대가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년에 심혈을 기울여 『韓文考異』를 편찬한 것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한유의 문장을 중시했던 지를 엿볼 수 있다. 그의 문학적 시각에서의 한유에 대한 평가는 이학가적 입장과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에서 본고는 주희가 문학적 입장에서 한유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희의 문학관과 그러한 문학관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주희의 한유에 대한 문학적인 시각에서의 평가를 크게 총평류의 총론성의 평가와 주로 타인과의 비교나 구체적 작품이나 풍격 등에 대한 기타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총론성의 평가

주희는 우선 한유 고문이 당시에 이룬 성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漢末 이후에 對를 맞춘 글만 쓰다가 줄곧 나중에 와서는 글이 문약해지기만 했다. 蘇頲 같은 사람이 힘을 다해 변화시켜보려고 했지만 변화시키지 못했다. 한유가 나와서야 다 없애고, 마침내 고문을 쓰게 되었다. 그렇지만 또한 對偶를 맞추던 그 이전의 체재나 풍격의 글만 썼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서 그 글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 문장의 기세가 쇠약해져 五代에 이르러서도 결국 바꾸지 못했다. 尹洙와 구양수 등 몇 명이 나오자 진과 완전히 변했다. 그 사이에는 변하고 싶었지만 못 변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두 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고문을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문을 쓰게 되고 변려문을 쓰는 사람들은 변려문을 써서 서로 엇섞이지는 않았다.¹¹⁾

일단 여기에서 보면 주희는 한유가 고문을 창도하여 쇠약한 문풍을 고문으로 일신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이는 실제 한유의 업적을 제대로 파악한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즉, 실제 한유 이후 황보식·손초 등 한유의 계승자를 자처한 이들이 한유의 작풍을 계승하여 문풍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문풍의 쇠락을 막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¹²⁾ 북송의 소식은 한유의 공로를 치켜세워 “문은 八代의 쇠락을 일으켜 세웠다(文起八代之衰)”¹³⁾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한유 당시로 보면 사실이며, 주희 역시 이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주희의 평가처럼 한유가 창도한 고문이 駢文의 주도적인 지위를 완전히 대신하게 하지는 못한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평가는 한유의 고문이 갖는 객관적인 성취와 가치를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한유의 시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유의 시문은 당시 최고로 후세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기 어렵다.¹⁴⁾

11) 『朱子語類』 권139, 제3조목, “漢末以後, 只做屬對文字. 直至後來, 只管弱. 如蘇頌著力要變, 變不得. 直至韓文公出來, 盡掃去了, 方做成古文. 然亦止做得未屬對合偶以前體格. 然當時亦無人信他, 故其文亦變不盡, …… 文氣衰弱, 直至五代, 竟無能變. 到尹師魯歐公幾人出來, 一向變了. 其間亦有欲變而不能者, 然大概都要變. 所以做古文自是古文, 四六自是四六, 卻不滾雜.”

12) 安贊淳, 「論皇甫湜·孫樵的古文特色與晚唐古文之衰落」(중국어문학, 제46집 2005.12) 참조.

13) 「潮州韓文公墓碑」, 『蘇軾文集』, 권17. 여기서는 黃啓芳 편집, 『中國文學批評資料彙編(北宋)』, 192쪽에서 인용.

14) 『朱子語類』 권139, 제26조목, “韓文公詩文冠當時, 後世未易及.”

이는 구체적 논거를 가진 평가는 아니나 주희가 한유의 문학적 성취에 대하여 한유 당시 최고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한유의 글에 대한 애호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한유의 글을 좋아하였으며 항상 세상에 선본이 없음을 걱정하고 매번 한 번 정밀하게 교정하여 유포를 넓히려고 하였지만 틈이 없었다.¹⁵⁾

여기에서 그는 한유의 시문에 대해 평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어려서부터 한유의 글을 읽기를 좋아하여 한유의 글을 校勘하여 세상에 유포할 뜻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주희가 만년에 『韓文考異』를 편찬하게 된 결과로 나타났다.

누가 묻기를 “王通이 옛사람을 함부로 모방한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또한 그가 포부가 커서 옛사람을 배우려는 것이었다. 한유 같은 경우는 옛사람을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유는 단지 관료만 되려고 하였다. 만년에 조주에서 올린 표 같은 경우는 더욱 말할 것이 없다. 한유의 문장은 다 좋은데, 만년에 것이 특히 좋다.”¹⁶⁾

주희는 평소 한유가 옛 사람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점은 王通보다 못하고 뜻을 관료가 되는데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한유의 문장 자체에 대해서는 “한유의 글은 다 좋고, 만년은 더욱 좋다.”와 같은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평소 제자나 다른 문인과의 문답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답식의 대화 가운데 한유에 대한

15) 『跋方季申所校韓文』, 『朱文公文集』 권85, 4쪽. “余自少喜讀韓文, 常病世無善本, 每欲精校一通以廣流布, 而未暇也.”

16) 『朱子語類』 권137, 54조목, “或問: “文中子僭擬古人, 是如何?” 曰: “這也是他志大, 要學古人. 如退之則全無要學古人底意思. ……退之則只要做官, 如末年潮州上表, 此更不足說了. 退之文字儘好, 末年尤好.”

높은 평가와 함께 글을 잘 쓸 수 있기 위해서는 한유·소식 등의 글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누차 강조하였다.

밤새 정문진이 문기를 “서한의 글과 한유 등 諸公들의 글은 어떻습니까?”라고 하여서 내가 말하기를 “지금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옛사람의 글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마음에 선입견으로 가지게 되니 견해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말로 하게 되는 것도 틀린 말이 되게 된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글을 쓸 때에는 만약 한 문장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얼마 있다가 쓴 문장이 의미나 문맥이 저절로 비슷하게 된다. 한유의 문장을 숙독하면 한유의 문장같이 쓸 수 있게 되고 소식의 문장을 숙독하면 소식의 문장같이 쓸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쓸 수가 없게 된다.”¹⁷⁾

여기서는 서한의 글과 한유의 글을 비교해달라는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에 앞서 우선 우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이전에 스스로 자세한 숙독을 통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을 권면하고 아울러 숙독을 통하여 글쓰기를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문미에 한유와 소식의 문장에 대한 숙독을 통한 학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문인의 문장을 배울 수 있는 典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희가 한유의 글을 배울 것을 권면하는 예는 아주 많은데 아래의 예를 보자.

문기를, “집안 동생이 자식에게 글공부는 어떻게 해야 발전이 있겠습니까?”라고 한다고 하니 말씀하시길, “한유의 문장을 숙독하게 하라.”라고 하였다.¹⁸⁾

17) 『朱子語類』 권139, 제17조목, “夜來鄭文振問: “西漢文章與韓退之諸公文章如何?” 某說: “而今難說. ……而今人所以識古人文字不破, 只是不會子細看. 又兼是先將自家意思橫在胸次, 所以見從那偏處去, 說出來也都是橫說.” 又曰: “人做文章, 若是子細看得一般文字熟, 少間做出文字, 意思語脈自是相似. 讀得韓文熟, 便做出韓文底文字; 讀得蘇文熟, 便做出蘇文底文字. 若不會子細看, 少間卻不得用.”

18) 『朱子語類』 권139, 제115조목, “問“舍弟序子文字如何進工夫” 云云. 曰: “看得韓文熟.”

지금 좋은 문장을 쓰고자 하면서 단지 『사기』·『한서』·한유·유종원의 글을 읽어서 되지 않는다면 노승의 머리를 잘라 가게.¹⁹⁾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전에 진사도의 글을 가장 즐겨 보았는데 그의 글은 곡절이 많다.”라고 하고 여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한유와 유종원의 글 가운데 좋은 것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²⁰⁾

이상에서 그는 글쓰기를 공부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빠르고도 편리한 방법이 바로 옛 사람의 좋은 글을 숙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유와 함께 소식·유종원을 함께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희는 평소 소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도 많았지만 유독 소식의 문장에 대해서는 찬사가 비판보다 많았다.²¹⁾ 하지만, 유종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의 사상의 순정성이나 평소 변려문을 즐겨 쓴 점 때문에 貶辭가 많았다. 그러나 위의 마지막 두 인용문을 보면 유종원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유의 글과 마찬가지로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이 보고 익힐 수 있는 모범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희가 문학적 성취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이학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소 한유 문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의 물음에 바로 “한유의 글을 숙독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기·한서와 함께 한유와 유종원의 문장을 모범으로 배우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음을 단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인이나 제자들에게 글쓰기 방법을 제시할 때 또 아래와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답하고 있다.

이 아이는 『左傳』을 읽고 나서 경서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복습하여 공

19) 『朱子語類』 권139, 제123조목, “今日要做好文者, 但讀『史』·『漢』·韓·柳而不能, 便請斫取老僧頭去!”

20) 『朱子語類』 권139, 제121조목, “又曰: “某舊最愛看陳無己文, 他文字也多曲折.” 謂諸生曰: “韓柳文好者不可不看.””

21) 安贊淳 「蘇軾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이는 朱熹의 문학관과 그 의의」(중국어문학논집, 2016.10.31. 게재 확정)참조.

부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한유·구양수·증공·소식의 글 가운데 기운 차고 의미가 분명한 것을 수십 편 골라서 쓰게 하여 반복하여 외우게 하면 더욱 좋다.²²⁾

사람이 문장을 지을 줄 알려면 반드시 서한 글과 한유의 글·구양수의 글·증공의 글 한 권씩을 취해야 한다.²³⁾

동파의 문자는 명쾌하고 노소의 글은 웅혼하여 다 좋은 곳이 있다. 예컨대 구양수·증공·한유의 글은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종원의 글은 비록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마땅히 가려야 한다.²⁴⁾

맹자·한유·반고·사마천의 책 가운데 크게 의론한 부분을 숙독해 보고 구양수·증공·소순의 글도 마땅히 자세히 살펴보아야 글을 쓰는데 힘써야 할 부분이 보이게 된다.²⁵⁾

이상 아래의 네 단락은 모두 한결같이 한유를 비롯한 고문가들의 글을 모범으로 글공부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고문가들에 대해 약간의 구분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산문방면의 성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또 항상 학생들에게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들 모범 문장에 대한 숙독과 반복적 암송을 통하여 일정한 문장 기교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문장의 모범을 제시하는 거의 모든 예 가운데 한유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희가 생각하는 모범 문장 속에서 한유의 글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희의 문학적 입장에서 출발한 한유의 문장에 대한 총론성의 평가는 대략

22) 「答蔡季通」, 『朱文公文集』 권44, 4쪽. “此兒讀『左傳』向畢, 經書要處, 更令溫釋爲佳. 韓·歐·曾·蘇之文, 滂沛明白者, 揀數十篇, 令寫出, 反復成誦, 尤善.”

23) 『朱子語類』 권139, 제122조목, “人要會作文章, 須取一本西漢文與韓文·歐陽文·南豐文.”

24) 『朱子語類』 권139, 제39조목, “東坡文字明快, 老蘇文雄渾, 盡有好處. 如歐公·曾南豐·韓昌黎之文, 豈可不看? 柳文雖不全好, 亦當擇.”

25) 「答王近思」, 『朱文公文集』 권39, 제27쪽. “試取孟·韓子·班·馬書大議論處熟讀之, 及後世歐·曾·老蘇文字, 亦當細考, 乃見爲文用力處.”

위와 같으며,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총평에 가까운 평이 대부분이다. 이상 외에도 일부 다른 성격의 평가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유에 대한 기타 문학적 평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총론성 평가 외에도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 가운데에는 다른 문인과의 비교나 구체적 작품 혹은 작품에 대한 평가도 간혹 보이는데, 본고는 여기에서 이를 한유에 대한 기타 문학적 평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유는 이치를 말하려고 하면서 또 장난을 하려고도 했다. 평이한 곳은 지극히 평이하고 기험한 곳은 지극히 기험하다. 26)

여기에서는 우선 한유의 글쓰기 태도가 충분히 진지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한유 문장의 특색을 평이한 것과 기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작문태도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여부는 차치하고 보면 한유 문장의 양대 특색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잘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유 문장의 傳承에서 그의平易함은 李翱가 계승하고 奇險함은 皇甫湜이 계승한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또 유종원과의 비교평가를 하고 있다.

또 누가 문기를 “한유와 유종원 두 사람의 문체는 누구 것이 바른가요?”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유종원의 글은 고고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순정하지는 않다.”라고 하였다. 27)

즉 여기에서는 유종원의 문장과 비교평가를 통하여 한유 문체의 순정함

26) 『朱子語類』 권139, 제23조목, “退之要說道理, 又要則劇, 有平易處極平易, 有險奇處極險奇.”

27) 『朱子語類』 권139, 제25조목, “又問: “韓柳二家, 文體孰正?” 曰: “柳文亦自高古, 但不甚醇正.””

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아래에서는 한유·구양수·증공의 문장과 당시 사람들의 문장을 언급하고 있다.

한유의 문장은 높고, 구양수의 글은 배울 수 있다. 증공의 글은 한 글자 한 글자 매우 엄격하지만 너무 여유가 없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글은 배우는 사람들은 어찌 한편을 쓰는데 그리 많은 힘을 낭비하는지.²⁸⁾

여기에서 보면 한유·구양수·증공 세 사람의 문장을 함께 언급한 목적은 분명 당시 사람들의 글을 비판하기 위함이나, 세 사람의 글에 대한 褒貶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유의 글에 대한 평가는 微辭가 없고, 구양수의 글에 대해서는 그저 문장의 전범적 가치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평소 칭찬 일색이던 증공의 글²⁹⁾에 대해서는 엄정함에 대한 칭찬과 동시에 여유롭지 못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세 문인의 평가에서는 한유를 비교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식과 비교한 평가를 보자.

누가 문기를 “한유의 조주시와 소식의 해외시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좋다. 소식의 만년시는 정말 좋은데 다만 글을 붓 가는 대로 마음대로 써서 전혀 이치는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³⁰⁾

문기를, “소식과 한유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평정함은 한유에 미치지 못한다. 동파가 고묘하게 말한 것은 단지 佛理를 말한 것 뿐으로 다른 곳은 모두 거칠다.”라고 하였다. 또 문기를 “구양수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알다.”라고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대체로 모두 문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평소 독서를 하며 고급

28) 『朱子語類』 권139, 제40조목, “韓文高。歐陽文可學。曾文一字挨一字, 謹嚴, 然太迫。又云: “今人學文者, 何曾作得一篇! 枉費了許多氣力。”

29) 李鴻鎮·安贊淳 역, 『주희 문학의 연구』(역락출판사, 2015), 209쪽에서 莫礪鋒 선생은 “주희는 일생동안 前代나 當代의 많은 작가들에 대해 평가를 했었다. 그는 三蘇나 왕 안석 등의 글에 대해 칭송도 하고 또 아주 신랄한 비평도 적잖게 했었는데, 유독 구양수·증공에 대해서만 주로 칭송일변도로 비난이 적었다.”라고 하였다.

30) 『朱子語類』 권140, 제17조목, “問: “韓退之潮州詩, 東坡海外詩如何?” 曰: “卻好。東坡晚年詩固好。只文字也多是信筆胡說, 全不看道理。”

의 치란과 흥쇠를 고구하여서 문장을 쓰려고 하였지 자신의 수양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고 평소에 시를 읊조리고 술을 마시고 농담하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³¹⁾

이상 두 인용문을 보면 주희는 소식과 구양수에 대해서는 ‘거칠다’ 혹은 ‘알다’ 등 貶辭가 있는데 반해 한유의 시문에 대한 문학적 평가에서는 貶意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희가 아래 인용문에서 지적하였듯 한유 등에 대한 불만은 그들이 문인으로 자처하며 성현의 공부에 주력하지 않고 글쓰기를 소일거리 삼는 태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비평은 문학자체보다는 비문학적인 부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살펴본 주희의 한유에 대한 문학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유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작품이나 풍격 등에 대한 세부 평가보다는 총평류의 총론성 평가가 많은데,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한유의 문장을 하나의 典範으로 보아 숙독하고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다.

둘째, 문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유가 이치를 궁구함에 소홀한 부분을 비평하고는 있지만 시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貶意가 없이 상당한 애호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비교적 세부적인 평가에서는 유종원·구양수·소식·증공 등 당송시기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함께 언급하며 간혹 비교와 함께 품평을 하고 있으며, 한유를 제외한 타 문인을 언급할 때도 거의 예외 없이 한유나 한유의 작품을 함께 언급하며 타 문인들과의 비교에서도 모두 최고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朱子語類』 권130, 제79조목, “問: “東坡與韓公如何?” 曰: “平正不及韓公. 東坡說得高妙處, 只是說佛, 其他處又皆粗.” 又問: “歐公如何?” 曰: “淺.” 久之, 又曰: “大概皆以文人自立. 平時讀書, 只把做考究古今治亂興衰底事, 要做文章, 都不會向身上做工夫, 平日只是以吟詩飲酒戲謔度日.””

3.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가 갖는 의의 및 결어

이상으로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를 이학가적 입장과 문학적 입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목에서 보이듯 본고의 초점은 한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이는 주희의 문학과 그 문학과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고, 주희의 전체 문학과나 문학세계는 본고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에 토론의 범위를 주희의 한유에 대한 많은 평가 가운데 가급적 문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로 국한하였다.

주희의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평가는 사실 문학적 입장에서의 평가와 확연히 달라서 문학비평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는 주희가 문학적 입장에서 한유를 평가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학가적 입장에서 한유를 평가할 때도 한유의 문학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한유가 第一義를 글쓰기에 두고 있는 한유에 대해 시종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유에 대한 주희의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평가는 주로 한유의 文道觀과 관련이 있는데 각기 문도관 형성 淵源이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문도에 대한 인식이나 본질 그 자체의 차이도 있지만 주희가 대표하고 있는 입장 탓에 의도적으로 구분 지으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³²⁾ 앞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주희의 한유 詩文에 대한 평가는 총론성의 평가이든 기타 타인과의 비교평가이든 한유의 시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譏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소식에 대한 평가와도 다른 것으로 주희의 소식에 대한 평가 가운데 여러 곳에서 소식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서 경도된 모습을 보였지만 찬사와 함께 비판적 지적도 적지 않았다.³³⁾ 그런데 한유의

32) 李鴻鎮·安贊淳 역, 『주희 문학의 연구』(역락출판사, 2015), 394쪽에서 莫礪鋒선생은 “주희의 한유에 대한 가혹한 평가는 아마도 이학가의 문벌 간의 편견이나 다소 위선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한유가 주도한 유학의 업적을 부정하기 위하여 그의 인품을 부정하는 이러한 논의는 본받을 바가 못 된다.”라고 하였다.

33) 安贊淳, 「蘇軾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이는 朱熹의 문학과 그 의의」(중국어문학논

시문에 대한 평가는 비판성의 지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유종원·구양수·소식, 심지어 주희가 가장 평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증공과 더불어 언급할 때에도 한유 외에 다른 문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였지만 유독 한유만이 예외임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이상의 토론을 통해 얻은 주희의 한유에 대한 평가가 갖는 의의를 한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유의 시문을 평가한 주희는 문학애호가이기도 했지만 시종 이학대종사의 신분이나 입장을 떠날 수가 없었고 떠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한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문학적 평가에서는 거의 貶辭가 없었고, 그의 한유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대부분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평가로 비문학적인 평가에 보인다. 이는 그가 소식을 비롯한 다른 문인들을 평가할 때 문학적인 평가에서도 늘 다소간의 비판적 지적이 있었던 것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금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아래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한유는 은연 중 ‘文統’과 ‘道統’을 자임하였고, 또 구양수·소식 등 당시 이학가들과 여러 면에서 대립관계에 있던 문인들이 또 그렇게 추존하던 인물이었기에 주희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또 주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한유는 시종 第一義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짓는 일이었으므로 이학가 주희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래도 第一義가 글 쓰는 일인 점을 제외하면 한유가 전대 문인들 가운데 학술적으로 이학가와 가장 근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실제 周敦頤·二程에서 주희로 이어진 이학가들은 ‘文從道中流出’·‘自成文’같은 문론을 견지하고 있던 이학가의 잣대로만 보면 공자·맹자 등 성현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한유 역시 이 잣대로 볼 때는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주희는 이 잣대의 비판을 한유의 시문에 대한 문학적 비판으로 확대하지 않고 이학가적 입장에서의 비문학적인 비

판에만 집중하였다. 이는 주희가 二程 등 전대 이학가들과 달리 훌륭한 문학 적 소양과 심미적인 능력을 갖추었기에 이학가적 입장만 제외하면 한유의 시 문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주희는 고문에서의 성취가 뛰어난 이학가로 수 차례에 걸쳐 한유문 장에 대한 애호를 숨기지 않았고, 또 만년에는 『한문고이』를 직접 편찬하기도 하였으니, 그가 한유의 문장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점도 한유를 유종원·구양수·소식·증공 등 문학적 성취가 높은 문인들의 문장을 함께 거론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잖 은 비판적 지적이 있었던 것과 달리 유독 한유에 대해서만 부정적 평가를 하 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한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살펴본 주희의 문학관이 갖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사실 기존의 문학비평사나 문학사에서 습용해오던 견해와는 적잖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희는 이학대종사로서의 신분적 제약 탓에 한유에 대해서도 이학가적인 입장에서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의 부정적 비판은 대부분 비문학적인 비판에 국한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그러한 비문학적인 비판이 중국문학사나 중국문학이 론비평사에서는 문학적 비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점 또한 부정하기는 어 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비문학적인 강경 비판을 들어서 주희 의 문학관이 周敦頤·二程의 가장 극단적인 면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도³⁴⁾ 불공평한 평가일 것이다. 앞서서도 보았듯 문학적 평가에서 보여준 주희의 비 평은 전문문인의 비평이라고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보여주 고 있다.

34) 곽소우(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上海古籍出版社, 1988,) 228쪽 “그는 남송 도학가 중 에서는 글을 잘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관은 고문가적인 것을 띠 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이전의 도학가보다는 약간 진보적이긴 했지만 문론으로 말하 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학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할 뿐이었다. (他在南宋道學家中可謂能文之士, 然而他的文學觀却不帶古文家的意味. 他的思想, 比了以前的道學 家是有些進步的. 可是, 就論文的一點來講, 始終只是道學家中最極端的主張.)”

그렇다면 주희 평가의 이러한 확연한 양면성이나 모순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는 ‘절충’이라고 하는데³⁵⁾, 필자는 그의 특수한 신분이 초래한 평가 입장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런 ‘이중성’이지 모순이나 절충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역설적으로 문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주희는 자신의 그러한 이중적 신분을 스스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입장에 따라 확연히 다른 잣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하였기에 다행히 주희는 한유의 문학성 자체에 대해서는 周敦頤나 二程처럼 이학가적 단일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만약 본고가 그의 한유 등 문인에 대한 평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송대 이학가 문론이 周敦頤와 二程 등의 다소 극단적인 문론에서 출발하여 문학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던 것은 문학에 대해 고도의 관심과 조예를 지닌 朱熹를 통해 집대성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나마 주희에 의해서 이학가 문론의 방향이 정립되었기에 문단으로서는 어쩌면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5) 洪光勳, 《兩宋道學家文學論研究》(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93,) 138-139쪽 참조.

參考文獻

- 安贊淳, 『明代理學家文學理論研究』,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95
- 安贊淳, 「論皇甫湜·孫樵的古文特色與晚唐古文之衰落」, 『중국어문학』, 제46집, 2005.12
- 安贊淳, 「蘇軾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이는 朱熹의 문학관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논집』 제100호, 2016.10.31(게재 확정)
- 洪光勳, 『兩宋道學家文學論研究』,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93
- 洪光勳, 「朱熹의 詩論-道學家와 詩人사이의 갈등-」, 『중어중문학』, 제26집, 1999
- 李鴻鎮·安贊淳 譯, 『주희 문학의 연구』, 역락출판사, 2015
- 成復旺等, 『中國文學理論史』, 北京:北京出版社, 1987
- 程顥·程頤, 『二程集』, 北京:中華書局, 1981
- 程顥, 『河南程氏遺書』, 上海:上海商務印書館, 1939
- 鄧瑩輝, 「有德然後有言」辨
- , 「論宋代理學家對文道關係的認識」,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年7月, 第31卷, 第4期, 40-43쪽
- 郭紹虞, 『中國歷代文論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79
-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8
- 何寄澎, 『北宋的古文運動』, 臺北:幼獅文化事業公司, 1992
- 黃啓芳編輯, 『中國文學批評資料彙編』, 臺北:成文出版社, 1980
- 冷成金, 「蘇軾·朱熹文藝觀之比較」, 『中國人民大學學報』, 1996
- 黎靖德編, 『蘇軾文集』, 北京:中華書局, 1992
- 羅書華, 「『文從道中流出』:朱熹對文道關係的新理解」,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2卷, 第2期, 2014年 3月 47-50쪽
- 莫礪鋒, 『朱熹文學研究』, 南京:南京大學出版社, 2000
- 莫礪鋒, 「論朱熹對歷代散文的批評」, 『漳州師院學報』, 1999, 第1期, 1-9쪽
- 莫礪鋒, 「論朱熹對歷代詩歌的批評」, 『南京大學學報』, 2000, 第1期 第37卷(總133

期) 85-95쪽

王運熙·顧易生等, 『中國文學批評通史』,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6

楊清海, 「理学家文學思想的情理觀探析」, 『中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 第24卷, 第1期(總第97期), 57-60쪽

張健, 『朱熹的文學批評研究』, 臺北:商務印書館, 1969

朱熹, 『朱文公文集』, 四部叢刊本

朱熹, 『朱子語類』, 北京:中華書局, 1994

祝尙書, 「論宋代理學家的‘新文統’」, 『文學遺產』, 2006, 第4期, 80-92쪽

Abstract

The literary viewpoint and significance of Zhu Xi(朱熹), were presented through his evaluation about Han Yu(韓愈).

An, Chan-soon

Zhu Xi(朱熹), a well-known moralist and litterateur of Chinese academic history, was extremely interested in literature. Therefore, he was active in literary creation as a professional writer, and always expressed his literary opinion in his works, which include evaluation about other litterateurs.

As for his literary opinion, the evaluation of Han Yu(韓愈) (Tang Dynasty) attracts our attention mostly, since this persons was influential in Chinese literature history. It was necessary for Zhu Xi(朱熹) to evaluate him firstly because his opinion stood opposite against Neo-Confucianism, which was came up with by Zhu Xi(朱熹). However,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his status and argument, he evaluated Han Yu(韓愈) differently, which made an acute academic debate about the reason why this difference appeared among the later litterateur generation. Some people think that, as time went by, Zhu Xi(朱熹) changed part of his opinion,so he gave different evaluation. But other people disagree with that.

Through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ason why this difference appeared is mainly because the distinguished status of moralist and litterateur. As mentioned above, Zhu Xi(朱熹) was a moralist but also a litterateur, which are supposed to be 2 opposite statuses. Therefor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 in his mind originally, which made this difference.

Key words : Zhu Xi, Han Yu, moralist, litterateur, Neo-Confucianism,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